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음 7월 28일)

제21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아태 마스터스 유치전 돌입

<2022년>

송 지사 비롯 유치홍보단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출장
국제마스터스협회장 만나
전북 유치 의사 직접 전달

전북도는 생활스포츠의 국제대회인 제2회 2022년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유치홍보단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제1회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페낭 출장길에 나선다. 송 지사 등은 대회 참석기간 동안 대회 운영 방법과 경기장 시설 등을 꼼꼼히 살필 뿐만 아니라 주 말레이시아 한국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 전라북도 농식품 관촉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전북도의 대회 유치 의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21일 2022 아태 마스

터스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뒤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 7월께 정부로부터 국제대회 유치 신청 자격 승인을 얻어 IMG(국제마스터스협회)에 공식적으로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1월께 대회 유치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오는 2022년 이 대회를 최종 유치해 7년 연속 전북도에서 전국단위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송하진 지사는 출장기간 중 8일에는 2018 제1회 아태마스터스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그 이후 일정에서는 2018 경기장도 돌아보는 한편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최종 승인을 하는 국제마스터스협회(IMGA) 회장도 만나 유치 의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앞서 7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은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20여개 대한민국의 공관 및 대표처가 전라북도의 한지와 공예품을 활용한 한국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첫 사업 대상자인 주 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은 일반인의 출입이 많은 민원실과 주요 행사가 이루어지는 관저 연회장을 중심으로 연출하여 9월7일 완공 기념식을 한다. 또한, 송하진 지사는 7일 대사관 기념식에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개 마트에서 열리는 전북 우수 농식품 관촉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8일 아태마스터스대회 개막식장 앞에도 설치되는 전북 농식품 홍보부스에서도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촉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제1회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8월~15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며 참가자는 1만여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대북 특사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방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김정은, 비핵화 확고한 의지 재확인”

정의용 안보실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회담 이전 개소키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 2박3일 간 개최된다. 남북은 내주 초 판문점에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대북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과 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먼저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며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했다. 이어 18~20일간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추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키로 합의했다. 정 실장은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특사에게 전한 메시지를 소개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선택적 실천 의지를 ‘선’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같은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알려달라는 중재자적 역할을 우리 측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보고... 느끼고... 즐기는 콘텐츠 가득

전주시, 한옥마을 종합정보 리플릿 제작·배부

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의 다양한 전통문화시설에서 펼쳐지는 전시 및 체험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문화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문화시설의 현황과 안내지도, 전시관람·체험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담은 종합정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문화시설을 비롯한 주요 명소를 안내하는 지도, 한옥마을역사관 등 문화시설 16개소, 사적 제379호인 문화재인 향교에 대한 시설 설명과 문화시설별 대표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소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시설 종합 리플릿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는 콘텐츠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료콘텐츠로 나눠 유튜버의 경우 문화시설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전주한옥마을에는 현재 총 20개의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마다 전통소리 활성화와 전통주 향음주재 재현, 전통부채, 완판본, 한지공예의 전시·체험 등 다양한 전통 문화 관련 공연·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시설별로 운영주체가 다르고 관리부서도 제각각이어서 각각 각 시설별로 전시·체험프로그램 일정 등 콘텐츠 홍보가 이뤄졌었다. 이에, 시는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의 편의와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옥마을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전시·관람·체험 정보를 종합 안내하기로 했다. /송호철 기자

군산대,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군산대학교(총장 박병선)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확정됐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정원감축 대상교에서 제외됨은 물론 2019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개편에 따른 대학혁신지원 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지속적인 대학혁신 및 발전 계획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병선 총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따른 학습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창의융합형으로 바꾸고 구성원의 자율권과 대학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

1930's
GUNSAN TIME TRAVEL FESTIVAL

옛 추억을 만나다

9. 14(금) ~ 9. 16(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

군산시 시간여행문의관
GUNSAN CITY T. 063) 454-3304 festival.gunsan.go.kr